

무등산 국립공원 1년



광주의 상징이자 어머니 산인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4일로 1년이 됐다. 무등산은 2000종이 넘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서식, 증가하는 탐방객 등으로 인해 한층 효율적인 보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의 ‘어머니산’ 대한민국을 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뒤 ‘사계절’을 보냈다. 승격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 탐방객이 크게 늘어나는가 하면, 본격적인 공원 내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생태계 보고(寶庫)인 사실도 확인됐다. 탐방객 집계 방식에도 정확도를 높이기 되면서 효율적 공원 보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거품’ 빠진 탐방객 집계 가능해져=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 뒤인 지난해 4월~12월까지 찾은 탐방객을 397만명으로 집계했다. 1~3월의 탐방객수가 빠진 것이긴 하지만, 전년도 광주시가 집계했던 전체 탐방객(895만명)의 58.6%에 불과한 숫자다. 무등산 사무소 직원 및 근무요원을 투입, 직접 탐방객을 집계하는 ‘인력계수’ 작업과 탐방객이 많이 찾는 무등산 12곳에 설치한 ‘센서형 계수기’로 파악해 합산한 결과다.

◇야생 동·식물 낙원 확인=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2000여종이 넘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국립공원 승격 이후 이렇게 달라졌다



정확한 탐방객 집계 ... 효율적 관리 가능



야생동·식물 2000여 종 서식 확인

• 자연자원, 정신건강 연계 프로그램 확대

• 남은 과제-75% 육박한 사유지 비율 줄이기

방송·통신 시설 6기 통합 ... 경관 복원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연구원이 수행한 ‘무등산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중간 집계 결과, 전체 서식 동·식물만 2296종에 이르고 멸종위기종 13종을 비롯, 천연기념물, 국내 미기록종, 한반도 고유종 등 다수의 야생 동·식물 서식 사실이 밝혀졌다. 으름난초·수달·삼·담비·하늘다람쥐 등 동·식물과 독수리·새매·붉은배새매·수리부엉이·새호리기·올빼미·팔색조 등도 발견됐다. 국내에서 발

견되지 않았던 주황원점무늬새뽕거미의 서식 사실도 알려졌다.

◇체계적인 무등산 알리기=국립공원 지정 뒤 높아진 지역민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됐다. 올해 편백나무숲에서 명상, Eco트레킹 등 무등산이 가진 자연자원을 정신건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하는가 하면, 4월부터 사오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어울리며 사회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청소년 Park Ranger’, ‘지오투어리즘’ 등 프로그램도 주상절리대·너덜지대 등 무등산의 자연자원에 대한 청소년과 지역민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흡연 감시활동 및 중심사 지구 내 차량 출입 제한도 강화해 걷고 싶은, 둘러보고 싶은 무등산 만들기 활동도 펼쳐진다.

◇사유지 문제 해결될까=무등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은 74.8%(2012년 말 기준)로 국내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높다.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등산의 체계적 보전·훼손 방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지부진했던 장불재 등 무등산내 흉물스럽게 설치된 방송·통신 시설 6기의 통합문제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주년을 맞아 4일 오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연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무등산 국가 지질 공원 지정 이달 말 결정

광주시가 추진중인 국립공원 무등산 세계화 사업의 첫 단추인 국가 지질 공원 지정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의 우수한 지질학적 가치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 단계

로 무등산 주상절리대 등에 대해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지난해 11월 제출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질사무국은 지난달 20~21일 예비심사에 이어 오는 6~7일 본심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무등산국립공원과 화순, 담

양을 포함한 110.48km의 면적에 천왕봉을 비롯한 정상 3봉, 입석대, 서석대 등 지질명소 22곳과 호수생태원, 환벽당, 무진고성 등 비지질명소 20곳을 무등산지질공원으로 인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선 지정 면적

이 100km 이상이고 지질명소를 10곳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인증조건 7가지를 갖추고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근 광주시 공물관리담당관은 “무등산이 지닌 자원의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해 이달 말이면 최종적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1억 클럽’ 漁家 2275가구

작년보다 17어가 늘어 ... 日 방사능 영향 영광·완도 줄고 유가 하락에 여수·고흥 늘어

일본 방사능 유출과 유가 하락이 전남지역 역대 어가(漁家)의 희비를 갈랐다. 또 역대 어가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굴비와 전복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영광·완도 어업인들 가운데 ‘1억원 클럽’ 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유가 하락으로 여수, 고흥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동부권 어업인 가운데 1억원 이상 소득자는 크게 늘었다.

전남도의 지난해 도내 어업인 소득 실태 조사 결과 전체 2만1498어가 중 1억원 이상 가구는 10.6%인 2275가구로, 지난해보다 17어가가 증가했다. 1억원에서 그 미만으로 하락한 어업인은 73명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난 어업인은 80명에 이르렀다. 고소득일수록 경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도내 어업인 소득은 ‘일본 방사능’, ‘전복 가격 급락’, ‘유가 하락’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사능 피해를 우려한 소비자들이 굴비 소비를 줄이면서 지난해 굴비 매출은 35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00억원이 급감했고, 완도 전복 가격은 지난해 kg당 5만5958원으로, 전년도(4만9791원)보다 11% 하락했다.

이로 인해 1억원 이상 소득 어가가 영광에서는 112명(57%), 완도에서는 79명(11%)이 감소했다.

반면 유가가 지난해 200ℓ 당 1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 하락하면서 저인망이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여수·고흥지역 역대 어업인은 각각 111명(36%), 89명(39%)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패류양식이 750어가(33.4%)로 가장 많았으며 해조류양식 482(21%), 어선어업 369(16%), 가공양식 339(15%) 해수어양식 197(9%), 내수면양식 106(5%), 천일염 13(0.6%) 순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방사능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과 엔저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소득이 감소한 가공양식, 패류 양식 분야는 공동가공시설 설립 등 현대화 사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승 식약처장 “여수 수산물 안전”

여수 방문 “오염 확인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에도 여수 해역 수산물은 오염되지 않았다고 안전성을 공인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오전 여수수협에서 열린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촉진을 위한 수산물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처장은 “지난달 말 기름유출 사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식약처와 해양

수산부, 전남도, 여주시 등 각 기관이 사고 주변 해역의 바닷물과 어류 등을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기름이나 중금속 등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장현 사단법인 한국새고막협회 회장은 식약처가 여수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형주 여수수협장은 “마비성 패류독소와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의 발효가 있거나 하던 모든 수산물의 판매 금감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결과의 발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진광화 여수수산인협회장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처장은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해 돔, 명게, 개불 등을 시식하고 갈치와 멸치 등 건어물을 사는 등 상인들을 위로한 뒤 경남 통영으로 향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씨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이주열(62) 전 한국은행 부총재를 내정했다.

강원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전 부총재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 해외조사실장·조사국장·정책기획국장을 거쳐 2007년 통화신용정책 부총재로, 2009~2012년 부총재를 역임하는 등 35년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통화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 공휴일 66일 ...올보다 2일 줄어

올미년인 내년 실제 공휴일은 66일로 올해보다 이를 적고,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면 114일까지 될 수 있다.

3일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월력요청에 따르면 2015년은 52일의 일요일과 16일의 공휴일을 합쳐 총 공휴일이 68일이지만, 일요일과 겹친 3·1절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이다. 이는 올해 실제 공휴일(68일)보다 이를 적은 것이다. 내년 이를 연속되는 공휴일은 석가탄신일 5월 25일(월), 현충일 6월 6일(토), 광복절 8월 15일(토), 개천절 10월 3일(토)

등 4번으로 일요일과 연결돼 있다. 사흘 연휴는 설 연휴인 2월 18~20일(수, 목, 금), 나흘 연휴는 추석연휴와 대체공휴일인 9월 26~29일(토, 일, 월, 화)이다.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모든 휴일 수는 120일이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6일을 빼면 실제 휴일 수는 114일이다. 이 경우에 사흘 연휴는 3차례로 석가탄신일, 한글날, 성탄절이 된다.

또 추석연휴는 나흘 연휴가 되고 설 연휴는 다섯 연휴가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1226-증-52297호

로안시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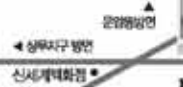
노안교정

 **백원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로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백원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회지점: 268-6163 동양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루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